

중국 스마트시티 건설 현황 및 전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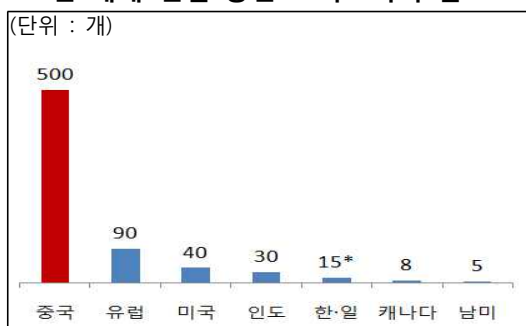
장 링(중국리서치팀, zhangling@kdb.co.kr)

- ◆ 중국 스마트시티 건설은 정부의 강력한 지원에 힘입어 빠르게 추진되고 있으며 최근 항저우, 선전 등 지역에서는 첨단기술을 활용한 차세대 스마트 건설 가속화
- ◆ 현재까지 스마트시티 건설은 대부분 정부예산에 의존하였으나 향후 시장 확대와 함께 상용화 프로젝트 위주로 민간자본의 참여 증가 전망

□ 중국 스마트시티 건설 구상은 '12년 최초 제기된 이후 정부의 강력한 지원에 힘입어 빠르게 추진

- '12.11월 중국정부는 『국가 스마트시티 시범도시 잠정 관리방법』을 발표하고 '13년초 90개 시범도시를 1차적으로 선정
 - '17년말 기준 중국에서 건설 중인 스마트시티 수는 약 500개로 전세계의 50% 차지(딜로이트, '18.2월), 그 중 정부가 공식 선정한 시범도시는 277개에 달함
 - * 스마트시티는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해 도시의 공공기능을 네트워크화 함으로써 도시관리 수준과 산업의 고도화를 실현한 첨단도시로 일본의 e-Japan('03년), 한국의 u-Korea('05년) 등이 대표모델
- 중국정부는 지역별 빅데이터관리국을 신설하여 공공부문의 데이터 개방을 추진하고 스마트시티 건설 관련 자금지원 강화
 - CDB는 '13년 800억 위안 규모 스마트시티 건설 대출 지원 계획 발표
 - 항저우는 '17년 샤오산구(蕭山區) '교통 브레인' 프로젝트에 1.9억 위안 투자
- 스마트시티 중 인프라(데이터센터 등) 및 공공서비스 분야(정무, 교통관제 등)는 정부가 투자하고 상용화 프로젝트(주차관리, 간편 결제 등)는 민간자본과 정부가 공동 투자하거나 민간자본이 주도하고 정부가 일부 건설자금 지원

전 세계 건설 중인 스마트시티 분포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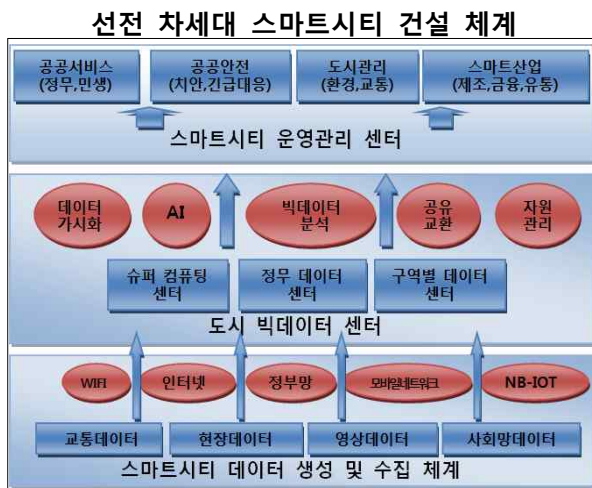
주 : 한국은 '18년에 국가시범도시 2곳(세종, 부산), 실증도시 2곳(대구, 시흥) 선정
자료 : 딜로이트('18.2월), "슈퍼 스마트시티"

중국 스마트시티 건설운영 모델

구분	프로젝트	비고
정부 독자 건설운영	'평안도시' (초기 도시 치안 관리 프로젝트)	정부 재정부담 및 운영과정의 전문성 결여로 흐지부지됨
정부투자+ 외주기업 건설운영	'디지털 동청(东城) (베이징 동청구 스마트 개조 공정)	다수 공공분야 프로젝트가 동 모델 적용
민간자본 주도+정부 지원	'스마트 샤먼(厦門) (대중교통, 상권 의료 등 스마트화)	기업이 사업권 소유. 주로 프로젝트 자체 수익에 의존

□ 최근 항저우, 선전 등은 빅데이터, 인공지능, 5G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차세대 스마트시티 건설 추진

- 항저우 정부는 알리바바와 전략적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'17년 알리클라우드 기반의 도시 관리 프로그램인 'ET 도시브레인' 도입
 - 항저우는 다양한 데이터를 통합 및 네트워크화 하여 도시의 '데이터 신경망'을 구축하고 알리바바의 AI 칩을 탑재한 슈퍼컴퓨터를 통해 분석 처리
 - (사례) 'ET 도시브레인'은 항저우 구급센터와 연결되어 출동한 구급차를 위해 최적 경로 산정 및 구급차가 모든 골목을 통과하는 시간을 정확히 계산하여 신호등을 자동 조절함으로써 현장 도착 시간을 50% 단축
 - 항저우 '도시브레인' 프로젝트는 IDC '2018 스마트시티 아시아태평양 어워드'에서 교통 부문 대상 수상
- 화웨이는 '18.11월 선전에서 화웨이클라우드EI 기반의 '도시 지능체' 계획 발표
 - '도시 지능체'는 선전의 교통, 의료, 금융, 제조 등 분야에 화웨이 AI 솔루션을 도입하여 운영효율과 생산성 제고 목표



자료 : 선전시정부('18.7월), "차세대 스마트시티 건설 방안"



자료 : 알리클라우드社 홈페이지

□ 중국 도시화 추진과 함께 스마트시티 관련 사업기회 지속 증가 전망

- '17년 중국 스마트시티 시장규모(매출기준)는 약 6,500억 위안으로 추정되며, '20년까지 1조 위안 돌파 전망(딜로이트, '18.2월, BCG, '17.12월)
- 시장 확대와 함께 상용화 프로젝트 위주로 민간자본의 참여 증가 전망
 - '19.1월말 기준 중국 재정부 PPP센터에 등록된 '스마트시티' 관련 프로젝트는 45건으로 그 중 60% 이상은 투자액 5억 위안 이하이며, 주로 프로젝트 자체 수익과 정부 보조금을 결합한 'Validity Gap Funding' 모델로 운영